

2022년 -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진 신념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공경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정녕 이번 4월의 심야열병식은 탁월한 수령, 위대한 평장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강성번영한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름없는 농장원인 제가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을 받아 안았을 때 정말이지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해주시러 나라의 중요인사까지까지 통채로 내어주시고 조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았습니다.》

... 이것은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으며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이 러친 도로들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번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평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한없는 고마움이 어려있다. 태양을 떠나 아름다운 꽃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값높은 삶과 행복, 밝은 래일이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10년간 공화국은 얼마나 위대한 변혁과 기적들을 창조하였는가.

뜻깊은 이해에만도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안겨주기 위한 사변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져왔다.

되돌아볼수록 가슴뭉툼함을 금할수 없다.

사회주의명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인 송화거리와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상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안다락시주택구의 준공,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우와 함께 눈부신 불출기를 내뿜으며 만리창공으로 힘차게 솟구쳐오른 신형대륙간단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장쾌한 모습과 강대한 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축하 열병식,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에서 90여일만에 승리,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체택,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성대한 준공의 날을 맞이한 련포은실농장, 황남평에 펼쳐진 농기개바다, 곳곳의 농촌지역들에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

이 모든 기적적승리는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도, 어느 누가 도와주어서 마련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엄혹한 형세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고 세련된 령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올해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철세의 애국자의 희생적인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들이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들은 온한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헌신의 길을 걷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새해 정초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는데 이어 수많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을 지도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1월 련포은실농장건설예정지나 현지에서 료해하시던 그날에는 련포지구에 100정보은실과 농장살림집지구가 일떠서게 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은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떠세우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확공식 그날에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살림집건설의 확공을 알리는 발표목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게 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으로 홀리는 5월의 그날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기가 왔다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쳐줘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서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라며 천만인민은 그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이렇게 이해의 하루하루가 흘러왔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총성,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무한한 헌신으로 이어진 올해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다.

이 조선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역척의 의지, 사랑받는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의 날과 달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2022년은 위대한 사변과 기적들을 아로새긴 승리의 해로 빛나고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렸다고 하시며

주제111(202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을 앞둔 송진,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이날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거리의 전경이 정말 불만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레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의 어머니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

을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된 송진, 송화지구의 새 살림집에 사람들이는 행복한 삶의 길을 펴게 되었다.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

주제111(202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통강안다락시 주택구를 돌아보시었다.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력신자, 근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

부외 보통강기술 명당자리에 다

락식, 다층, 소중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우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수많은 설계형성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

부외 보통강기술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중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우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수많은 설계형성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에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은 떠받드는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조선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조선이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해올수 있는 비결은 사회의 공고한 단결에 있다.》(네팔인리버트잡지 《네팔 투데이》)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 조선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령도자를 결사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조선의 불패의 강국으로 떠받드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에티오피아신문 《포춘》)

《김정은각하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리상적인 국가령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애민형의 정치가이신 김정은각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우리》라는 말과 더불어 불리우고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속에 살고있다.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은 바로 일심단결이다.》(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에 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 좋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진 조선은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더욱 떨쳐갈것이다.》(로씨야리빙공산당 하바루스크변방위원회 제1비서)

본사기자